

[종합·국제]

■ 전남도청 남악 신청사 입주 1년



오는 15일로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된다. 황량한 남악신도시에 도청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진 1년 전(사선 위쪽)과 아파트 건물이 한창 올라선 현재 사진이 대조적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남권 랜드마크...지역발전 견인

오는 15일은 전남도청이 109년간의 광주 광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군 남악 신청사로 이전,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식 개청식은 지난해 11월 1일 열렸다. 개청 당시 열악한 접근성과 부족한 부대시설 등으로 민원인과 직원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샀던 남악 신청사는 이전 1년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신청사는 전남 서남권의 랜드마크로서, 지역발전의 기폭제라는 위상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OC 확충...관광객 31만명 찾아 동부권 도로 개설 늦어 주민 불편

◇지역경제 발전 견인차=신청사는 개청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남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31만 명의 관광객을 맞았다. 전남 서남권의 상징적인 건물이 된 셈이다. 인근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신청사가 들어선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는 32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2~3천만 원이 올랐다.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600~700만원 수준으로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술집과 음식점 등에 국한되긴 하지만 상가 권리금 역시 40평짜리가 최고 8천만 원에 이른다. 해당지구 국토보공인중개사 장성욱(50)씨는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해당지역은 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상태"라며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경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망=남악 신청사는 지난해 10월 19일까지 이사를 마치고 11월 11일, 각종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불만을 샀다. 그러나 지금은 목포 하당지

구에서 신청사에 이르는 8차선 진입로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주변 도로가 상당부분 정비되고 있으며,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도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중교통수단 역시 광주-신청사 간 직행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목포-신청사 간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됐으며, 목포시내에서 신청사까지 시외요금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던 택시 역시 정상적으로 미터요금 받는 등 교통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그러나 신청사와 동부권을 잇는 목포-광주 간 고속도로는 오는 2010년께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도청건물이 1년 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진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대시설=개청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신청사 주변은 1년 새 십여 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사는 듯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1~2년 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거나, 각종 문화·쇼핑·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를 몰고 하당 신도심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신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1천200여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350여 명이 12대의 버스로 매일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 710명을 제외한 나머지 490명 정도는 5~10분가량 차를 몰고 하당 신도심이나 목포시내까지 진출해 식사를 하고 있다.

한편, 남악신청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토산 자락 7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 23층, 연건평 2만4천 평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됐다. 사업비로만 1천680여억 원이 투입됐다. 이삿집만도 1톤 트럭 5백여 대 분량으로, 무려 9억8천여만 원의 이사비용이 들어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노벨 문학상, 터키 오르한 파묵

유력한 후보 고은씨 수상 무산

스웨덴 한림원은 12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54)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의 시인 고은(73)씨는 올해도 노벨상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한림원은 터키 이스탄불 출신인 파묵이 "고향 이스탄불의 우울한 영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화간 충돌과 복잡함에 대한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림원은 이어 "파묵은 성장하

면서 전통적인 오토만 가족 환경에서 더욱 서구화된 생활양식으로 변화를 경험했다"며 "그는 이런 경험을 3세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에 관한 자신의 첫 소설에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52년 터키이스탄불에서 태어난 뒤 1974년 소설 '제브렛 씨와 그의 아들들'로 문단에 데뷔했다. 프랑스 유럽발전상, 마다갈르 소설상, 프랑스 최우수 외국문학상, 아일랜드 인터내셔널 임팩 더블린 문학상을 수상했다.

16세기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세



밀화가들의 예술적 고노와 암투를 그린 '내 이름은 빨강'으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작가다. /윤영기기자 penfoot@

'北 침침시 미군 투입' 贊 45%-反 49%
美시카고협 5개국민 조사

미국민들 가운데는 한미 관계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국의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시카고지구문제연구소(CCGA)가 미국,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등 5개국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53%는 한미 관계가 "예전과 다름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5%는 "악화됐다", 15%는 "개선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이 73%로 가장 높고 호주 56%, 인도 48%순인데 비해 미국민들이 가장 낮은 44%로 나타났다.

또 미국민들은 북한이 한국을 침범할 경우 미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찬성 45%, 반대 49%로 응답했다.

주한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는 미국민의 62%가 "있어야 한다", 20%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악! 또 9.11 테러?

뉴욕 고층 아파트에 경비행기 충돌 뉴욕양키스 투수 리틀 등 2명 사망

11일(현지시각) 오후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연상시키듯 소형 비행기가 뉴욕 맨해튼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전투기들이 출동하는 등 한때 미국이 아연 긴장했다.

뉴욕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2분께 소형 비행기가 맨해튼 북동부 이스트 72가의 50층짜리 벨레어 콘도미니엄에 충돌, 건물 일부가 불타고 최소한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빌딩과 충돌한 소형비행기는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투수 코리 리틀이 조종하고 있었으며 CNN은 리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고 비행기는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이 아파트의 20층 부분을 강타한 뒤 곧이어 불이 나고 잔해들이 땅으로 떨어졌으며, 2개층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뉴욕 상공을 검은 연기로 뒤덮었다.

CNN과 폭스 뉴스는 사고직후 상공과 지상에서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와 연기로 덮인 뉴욕시의 모습을 수시간 동안 생중계했으며, 미국민들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무력감을 느꼈다",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뉴욕 양키스의 투수 코리 리틀이 조종한 경비행기가 11일 오후 뉴욕 맨해튼 50층 건물에 부딪치면서 건물에서 연기와 화염이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카터 "北에 고립감 느끼게 하지 않아야"

"북한 핵실험 위기 해소방안은 군사적 위협과 봉쇄 강화, 9.19 공동성명 재추진 등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항구적으로 고립되고 존재를 위협당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1일자 뉴욕타

임스(NYT) 기고문에서 "현 군사적 상황은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는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인 100만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스 12월 초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핵군축 결의안 올해도 유엔 제출

일본 정부는 11일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핵무기 폐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 핵군축결의안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과거 13년간 연속 제출돼 채택된 바 있으나 북한의 공식 국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공식 국가명이 언급된 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핵실험을 비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 초안은 이밖에 ▲2010년의 핵비확산조약(NPT) 재검토회의의 준비작업에 대한 협력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12월 초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초·중·고급 과정. 리틀자이나 中國語學院. Includes details about HSK preparation and course structure.

11월 3일 광주출발(단1회) 근최용 곰강산 기차여행 (부박3일). Includes a detailed schedule table for the train trip.